



I&S

INTEGRATION & SOLUTION

아이앤에스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대표변호사 조영길

고객의 문제는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아이앤에스(I&S)의 원칙은 모두 같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길에 대한 믿음.
보편적이며 타당한 원칙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리롭게 해결하는 것.
아이앤에스(I&S)의 구성원들은 고객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앤에스(I&S)의 구성원들은
수많은 현장 실무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한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노사관계 개선의 바른길을 발견하여
의뢰인들과 함께 걸어가기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당파성의 원칙에서 보편적 타당성의 원칙으로’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노사관계개선연구소

Telephone 02 2183 2700 www.ins-lab.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텔리24 동관19층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IFU}

청년의 때, 대학 4년 동안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빨리 가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곳을 향해 가느냐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찾아가는 곳! 교수님들, 선배, 후배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동역자로서 삶의 비전을 나누는 곳!
단순한 스펙이 아닌 역량을 키워나가는 곳!

한동은 이야기합니다.

스펙보다 비전이다! 스펙보다 역량이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자!
한동대학교에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큰 비전을 가슴에 새깁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우리는 큰 비전을 담은 큰 그릇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에서
세계로 통하는 브랜드가 되다!

최고의 브랜드

It's You

2013학년도 고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 정시 원서접수
2012. 12. 22(토) ~ 27(목)
- 접수방법 : 인터넷원서접수
www.kosin.ac.kr
www.uwayapply.com
- 입학문의 : 051) 990 - 2141



2013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다군) 일반학생

2012.12.22(토) ~ 12.27(목) 17:00까지

교과부 주관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선정 (2009~2012)
교과부 주관 '우수인력 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2008~2012)
교과부 주관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지원사업(ACE)' 선정 (2010~2014)
유엔 아카데미임팩트(UNAD) 글로벌허브기관 선정 - 고등교육역량강화 부분 (201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인턴파견 협정 체결 (2008)
무감독 양심시험제도 시행/ 100% 자율전공 입학/ 100%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과정 운영

홈페이지 <http://www.handong.edu> 입학상담 admissions@handong.edu Tel: 054)260-1084~6 Fax: 054)260-1809

티끌 모아 태산

손봉호 (대표주간)

다른 가정의 사생활에 대해서 별 관심을 쓰지 않지만 오래 살다 보니 많은 가정들을 알게 되었다.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그들 대부분의 씬씀이가 우리 집보다 험프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가정들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집도 있어 안타깝다.

우리는 지독하리만큼 아끼며 산다. 여름에 냉방기를 틀지 않고 겨울에도 좀 춥게 산다. 외식을 자제하고 하더라도 비싼 것은 피한다. 내 돈으로는 커피숍 커피를 마시지 않고 비상상황이 아니면 호텔 음식을 먹지 않는다.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료를 절약하고 빗물 통을 설치하여 지하수도 아낀다. 40년이 넘은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50년 전에 산 남방서즈를 아직도 입는다. 30분만 안 써도 컴퓨터를 끄고 전기기구의 플러그의 스위치를 달아 잘 때는 반드시 전기를 끈다. 프라이드를 물고 다니며 긴 정지신호등 앞에서는 엔진을 끈다.

나의 이런 절약정신은 우선 어릴 때의 경험에서 생겼다. 어려웠던 시대를 가난하게 보냈기 때문에 한 번도 돈을 넉넉하게 가져본 적도, 써본 적도 없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거름으로 쓰기 위하여 길에 떨어진 소똥을 주우러 다녔다. 어머니는 “돈을 쪼개 쓰라” 하셨다. 만원짜리를 쪼개면 2만원이 된다. 즉 2만원의 효과를 낼 만큼 만원을 아껴 쓰란 말씀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네덜란드에서 보낸 8년의 세월이다. 그 나라 국민은 전 세계에서 구두쇠로 유명하다. 아무리 부자라도 사과를 껌쩍으로 사는 것을 보지 못했다. 대학 구내식당에서 한 번 돈을 내면 얼마든지 더 먹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먹다 남은 음식을 화란 친구가 먹는 것을 보았다. 음식 남기는 것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친구의 집에 초청받아 하루 밤 지는 데 영하의 온도에도 난방을 하지 않아 양복을 입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침대에 들어 간 적도 있다.

그렇게 아껴봤자 큰돈이 모일 것 같아 보인다고. 그러나 나는 “티끌모아 태산”이란 속담을 믿는다. 평생 그렇게 절약하니 교회 헌금과 기부금보다 생활비가 적게 들더라. 결혼 후 첫 번째 집을 지은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빚을 져 본 일이 없다. 그리고 그 빚도 안간힘을 다 쓰고 철저히 절약해서 얼른 갚았다. 나는 빚지는 것을 지극히 싫어한다. 나 개인, 우리 집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대표로 있는 기관도 가능한 한 빚을 지지 않도록 한다. 이자 돈은 버리는 돈과 다름없어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절약을 나무란다. 모두가 그렇게 살면 자본주의 경제가 거덜난다고 한다. 나는 경제학자가 아니므로 그렇게 지독하게 아끼는 네덜란드와 독일의 경제는 왜 유럽에서 가장 탄탄하고 풍덩 풍덩 소비 잘하는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경제는 왜 휘청거리는지 모르겠다. 소비가 미덕이란 말은 아직 실증되지 않았던 것 같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보다 소득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주로 아끼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부자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부자가 되면 돈에 비겁할 필요가 없다. 돈 때문에 양심을 팔거나 아첨할 필요가 없게 된다.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큰 장애가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검소하게 살면 어느 정도 부자는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검소하기 때문에 돈이 모이고 돈이 있어도 돈을 쓸 곳이 적기 때문에 더 부자가 된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부자 되는 방법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병이 날 수 있고 병이 나면 돈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다. 아끼는 방법이 훨씬 낫다.

내가 돈을 아끼는 것은 돈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모든 돈은 노동의 대가고 노동은 중요하고 신성하다. 나도 공돈이 생기면 기분이 좋지만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 네덜란드 유학 시절 대학이 제공하는 장학금을 사절하고 조교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아 공부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공돈은 장애인처럼 노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만이 받을 권리가 있다. 나도 인플레이션 덕으로 집 지을 때 진 빚을 쉽게 갚았지만 그것은 결코 공정하지 못했다. 빚을 갚는 마음으로 열심히 세금을 바쳤고 더 바칠 용의가 있다.



나는 돈을 아끼되 수전노(守錢奴)가 되지 않으려고 애쓴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자신을 경멸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써야 할 곳에는 돈을 써야 한다. 아들 결혼식 때나 장모 장례식 때는 축의금과 조의금을 받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결혼이나 장례에는 부조한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부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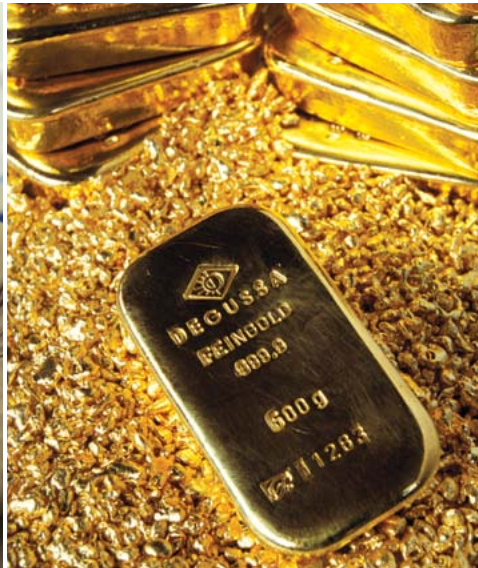
모든 소비는 환경을 오염시킨다. 환경오염은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재난이기 때문에 절제는 오늘날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미덕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모두 노랑이가 되기 바란다.



손봉호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박사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Contents

WORLDVIEW-DECEMBER-2012



WORLDVIEW

2012년 12월호 WORLDVIEW 통권 150호



표지인물
릭 오스트랜더

〈월드뷰〉는 우리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OVER STORY

- 08 좌담 하나님께 대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_최용준
- 12 지상특강 하나님께 대학이 중요한 이유: 신실한 학문과 기독교 고등교육 _릭 오스트랜더

SPECIAL

- 16 그리스도인, 돈과 마주하다 _황의서
- 20 교회, 돈을 어떻게 쓸까: 교회와 사회적 기업 _이윤재

COLUMN

- 04 대표주간 칼럼 티끌 모아 태산 _손봉호
- 30 대중문화 속 가족이야기 “부부 문제 솔루션” 프로그램에 빠져있는 솔루션 _박진규
- 32 미술이야기 이영희, 하늘로 가는 도정 _서성록
- 36 그림책이야기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선물 _현은자

CULTURE

- 40 성탄특집 성탄절을 의미 있게 맞으려면 _신국원
- 42 성탄캠페인 캐럴 부르기 운동: 크리스마스에 캐럴이 울리면 _편집부
- 48 유머 지옥 가고 싶은 사람 _손봉호

BOOK REVIEW

- 24 서평 깨끗한 부자, 가난한 성자 _조성표
- 26 서평 알수록 행복해지는 돈의 비밀 _오창섭

NEWS

- 46 사무국소식 법무법인(유) 로고스
- 47 월드뷰 뉴스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한 실천을 진척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대표주간 손봉호
발행/편집 김승욱
편집위원 김승태, 김혜정, 신현기, 유경상, 장유진, 차명실
자문위원 유진희, 정중모, 이상정
에디터 신호영
교정/교열 김선경
디자인 황정희
인쇄 완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화 02-754-8004
팩스 0303-0272-4967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https://www.facebook.com/cworldview)



하나님께 대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과연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채플과 신앙고백의 수준을 넘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학의 모습은 무엇일까?
 한동대 학문과 신앙연구소 소장 최용준 교수가 코너스톤대학 릭 오스트랜더 학장을 만났다.

☞ 인터뷰어: 최용준 (한동대 교수, 한동대 학문과 신앙연구소 소장)

최용준: 소개된 내용 외에 세계관과 학문, 신앙의 통합과 관련하여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있는지요.

릭 오스트랜더: 저는 노트르담대학에서 다양한 독회(reading) 모임에 참석하면서 학문과 신앙의 통합에 관한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70년대에는 아더 홉즈의 책을, 80년대에는 칼빈대에서 나온 카이퍼 관련 책들과 'Through the eyes of faith' 시리즈, CCCU에서 나온 통합 관련 시리즈 등을 읽으면서 학문과 신앙의 통합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릭 오스트랜더는 미국 미시간 주 그랜드래피즈에 있는 코너스톤대학교의 학장이자 교육자, 행정가이다. 또한 그는 3권의 책을 집필한 저자로도 학문적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다. 릭 오스트랜더는 시카고의 무디 성경학교 (Moody Bible Institute)에서 신학사를, 앤아버에 있는 미시간대학에서 역사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았다. 무디 성경학교에서 평범한 신앙인으로 신앙을 확실하게 다진 그는 미시간대학에서 수많은 무신론자 교수들과 학생들을 만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릭은 이 기간이 자신의 신앙과 학문을 검증하는 도전의 시간이자 기독교인으로서 거품이 빠지는 기간이었다고 회상한다. 그 후 인디애나 주 노트르담대학의 저명한 조지 마스던 교수 밑에서 미국 역사와 관련하여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마스던 교수의 신앙과 학문 그리고 하나 된 삶의 모습에 깊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는 무디 성경학교에서 다져진 신앙과 미시간대학에서 닦은 학문이 통합되는 경험을 한다. 릭은 독일 뷔르부르그(Wuerzburg)대학교의 풀브라이트 연구원으로 잠시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와 아칸사스 주 실로암스프링스의 존브라운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쳤다. 나중에는 이 대학 학장으로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핵심 커리큘럼을 수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신입생들을 위한 새로운 세미나와 오리엔테이션 및 여름 독서 프로그램 개발, 학교의 국제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였고, 새로운 교수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신입생들에게 기독교 세계관과 학문 및 신앙의 통합 교육을 위해 코스팩으로 사용하던 것을 조금 더 수정·보완하여 책으로 출판한 것이 그의 최근 저서인 Why College Matters to God: Academic Faithfulness and Christian Higher Education (Abilene: Abilene Christian University Press, 2009)이다. 최근 개정판이 나왔는데 이 책은 다른 기독교 대학 신입생들의 오리엔테이션 교재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재 코너스톤대학의 학장으로 그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은 매년 두 명의 교수를 채용하는 것인데, 이들은 바른 신앙뿐 아니라 그 신앙을 학문과 통합하는 세계관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어야 한다. 그는 이런 자들을 통해 코너스톤이 기독교 대학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내 로니(Lonnie)와의 사이에 네 명의 자녀(Ryan, Tyler, Rachel, Anna)를 두고 있으며, 사이클 매니어로 일 년에 수천 마일을 달린다고 한다.

최용준: 코너스톤대학의 학장으로서의 주요 업무 내용을 여쭙봐도 될까요?

릭 오스트랜더: 70%는 일반적인 행정 업무와 각종 회의이고, 30%는 더 큰 정책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학장으로서 기본적으로 모든 교무 행정이 학교의 비전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최용준: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신입 교수 채용 및 그 훈련 과정이 궁금한데요.

릭 오스트랜더: 신입 교수 채용 시에는 먼저 리서치 커미티(research committee)를 구성하고 모든 과정을 매우 투명하고도 공개적으로 진행합니다. 또 기존 교원들의 재교육을 위해 center for excellence in learning & teaching을 설립하고 승진 심사는 제 사무실에서 이뤄지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최용준: 교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릭 오스트랜더: 물론 있습니다. 첫 학기에는 신입 교수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에는 점심을 함께하며 세계관과 학문, 신앙의 통합, 기독교적 교육 등 실제적인 주제들을 두고 의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체 교수들을 위해서는 매년 가을에 네 차례, 봄 학기에는 1월에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틀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용준: 대단히 훌륭하고 멋진 아이디어인 듯 합니다.

릭 오스트랜더: 기독교 역사학자로서 또 학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임은 교수들의 신앙과 학문이 삶에서 통합하는 모습을 추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최용준: 그런데 그런 교수들을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릭 오스트랜더: 분야별로 다릅니다.

가령 역사 쪽은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경제 분야는 쉽지 않은 편입니다.

최용준: 다른 교직원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릭 오스트랜더: 코너스톤에서는 교수들뿐 아니라 모든 교직원들도 신앙고백에 동의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학생들은 교수들보다 기숙사 청소부들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코치들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해서 채용 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용준: 학생들은 어떤가요, 모두 크리스천인지 또 채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릭 오스트랜더: 코너스톤은 모든 입학생들에게 신앙고백을 요구합니다. 미국에는 두 종류의 기독교 대학이 있는데, 존브라운대학과 같이 열린 대학의 경우 비기독교인들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코너스톤은 제자도를 훈련하는 대학이므로 기독교인들만 입학이 가능합니다. 신입생들의 신앙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신앙고백과 간증을 요구하고 있어 무슬림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코너스톤은 채용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여 일주일에 세 번 월, 수,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드리고 있습니다.



최용준 한동대 교수이며 VIEW(캐나다 밴코버 기독교세계관 대학원) 및 ETF(벨기에 북음신학대학원) 객원교수이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필라델피아 웨스터민스터 신학원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를 거쳐 남아공 포체프스트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쾰른한빛교회, 브뤼셀한인교회 담임목사와 KUIS(한반도국제대학원) 교수를 역임하였다. KOSTA, YWAM, CBMC, Diaspora 2011 강사 및 여러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 대학이 중요한 이유: 신실한 학문과 기독교 고등교육

Why college matters to God?

- Faithful Learning and Christian Higher Education

강연: 릭 오스트랜더 (코너스톤 대학 학장)

이번 한동-코너스톤 특별 세미나의 전체 주제는 릭 오스트랜더 교수의 책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대학이 중요한 이유: 신실한 학문과 기독교 고등교육(Why college matters to God? - Faithful Learning and Christian Higher Education)”으로 잡았다.

오스트랜더 교수는 자신과 자신이 섬기는 대학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미시간의 사진을 보여주며 간단히 소개하면서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대학 생활에서의 이원론적 사고 방식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채플, 성경 공부, 단기 선교 등은 거룩하고, 강의, 공부, 전공, 직업 준비 등을 세속적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이원론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것이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의 학문적 배경을 설명하며 무디 성경학교에서 확고하게 세운 신앙과 미시간대에서 받은 세속적인 요소들을 노트르담대학 박사 과정 중 통합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한 기독교 대학에서는 이 모든 영역들이 일관성 있게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질적 Intrinsic’ 가치와 ‘도구적 Instrumental’ 가치

다음으로 그는 기독교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Intrinsic(본질적)” 가치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에 근거한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 모델에 따라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히브리어로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대상의 본질을 통찰하고 다스림을 의미한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패턴을 본받아 피조계를 다스리는 학문과 신앙을 통합한 행위라는 것이다.

더불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언급하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는 증거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든 일상다반사를 경험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원론에 빠지지 말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문화명령, 즉 생육하고 번성하며 에덴동산을 잘 돌보고 발전시키라는 말씀을 언급하며 창세기에 나타난 에덴은 하나의 정원이었지만 계속 발전하여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의 도성으로(from garden to city)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것은 창조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독교 교육도 이 문화명령의 맥락에서 그 본질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기독교 교육의 “Instrumental(도구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기독교 교육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에이전트, 매개체라는 것이다. 가령 한동대의 슬로건인 “Why not change the world?”는 바로 이러한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21세기 복음 전도의 한 예로 요한복음 3:16을 자기 눈 밑에 쓰고 활약 중인 미식축구 선수 팀 티보우의 스타일이 과연 효과적인지에 의문을 던진다. 물론 그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뿐 아니라 뛰어난 플레이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으며 복음을 전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오스트랜더 교수는 기독교 대학은 복음 전도를 통한 개개인의 구원은 물론 궁극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고 구속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골 1:20). 즉, 교회, 가정, 개인적인 삶, 정치, 비즈니스, 예술, 학교, 스포츠, 오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육, 사회사업, 비즈니스, 철학, 정치 등 모든 영역 및 분야를 통해 이 세상을 회복하며 바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학생들을 독자적이면서 변혁적 주체로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나아가 그는 기독교 고등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에 대해 언급했다. 오스트랜더 교수는 세상 대학에 다니는 세상 학생들의 일반적인 세계관에 대해 말하면서 오늘날과 같이 세속화된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또한 첨단 기술의 도전을 언급하면서 과연 기독교 대학들이 기술에 의해 사용 당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술을 사용할 것인지 질문을 던졌다. 그는 Christiansen이 쓴 The Innovative University와 Delbanco의 College: What It Was, Is, and Should Be라는 책을 추천하면서 기술이 어떻게 우리 교사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기독교 대학이 자동 전산화할 수 없는 부분들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캠퍼스에서 분별력 있는 신학 및 기술의 실천을 실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독교 대학의 교육이 현재 우리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행하는 교육과 신앙을 일치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를 다루면서 James K. A. Smith의 Desiring the Kingdom과 James 및 David Smith의 Teaching and Christian Practices를 추천했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관념의 단계에서 구체적인 실천들로 열매를 맺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기독교 대학으로 현재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강의 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강의실에서 다룬 주제들을 기독교적으로 접근하도록 돕는 것은 무엇인지 또 이러한 접근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밝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동-코너스톤 간의 MOU 체결 두 대학은 2011년 1월 26일 상호 협력 및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매 학기마다 최대 25명까지 교환 학생들이 상호 방문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한 학기를 다닐 수 있다. 교환 학생은 최소한 모교에서 1년을 이수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나이가 교수들 간의 교환도 가능하며 본 각서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정기적으로 상호 검토한다. 실제로 앞으로 학생들뿐 아니라 안식년을 보내는 교수들 간에도 활발히 교류하기로 합의하였다.

Worldview Special

돈. 돈. 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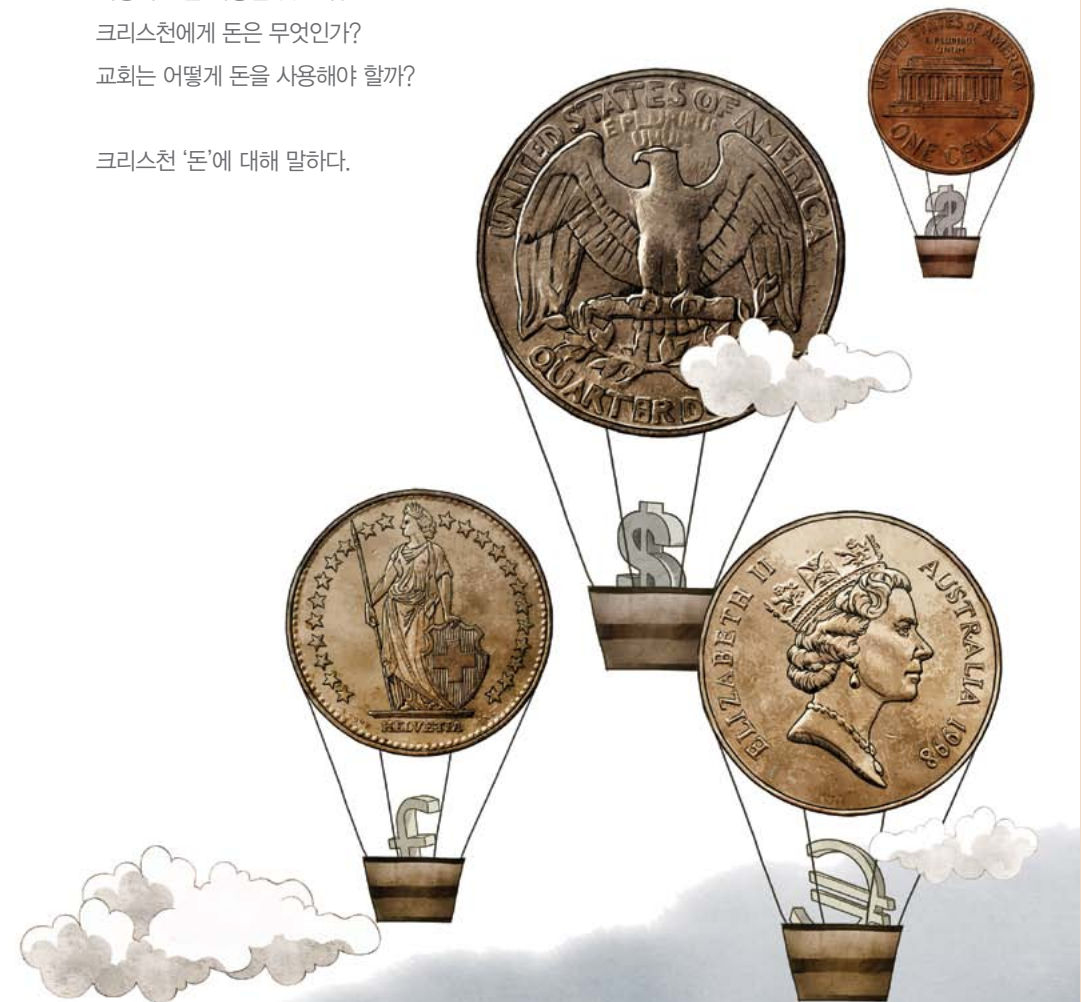
돈 문제, 돈 걱정, 돈 없이 살 수 없다면.

어떻게 돈을 사용할 것인가?

크리스천에게 돈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할까?

크리스천 '돈'에 대해 말한다.





그리스도인, 돈과 마주하다

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 황의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일반 금과 순금의 차이는 무엇일까? 일반 금은 주로 장식용으로 사용되지만, 순금은 돈의 가치를 갖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도 순금이며, 역사적으로도 순금은 국제무역에서 항상 돈으로 활용되었다. 창세기 2장 12절은 하벨라 땅의 “금은 순금”이라고 기록한다. 하나님은 에덴동산을 만드시고 순금 곧 돈을 주신 것이다.

인간은 왜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 문자를 제외하고 돈은 인간이 짐승과 구별되는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돈은 모든 물질관계 정립에 필수적인 존재이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물질관계에서 이 돈의 중요성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신명기 16장 16절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일 년에 세 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뵈옵지 말고”라고 말씀한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물질관계는 현금, 그 중에서도 십일조로 구체화 될 수 있으며, 돈 즉 현금이라는 수단은 간편하면서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능한다. 한편 사도행전 5장에서 아

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땅을 판 돈의 일부만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속였다가 죽음을 맞았는데, 이것은 이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멸시했기 때문이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물질관계 정립을 요구한다.

두 번째로, 돈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실적인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문제들이 때로 물질적 보상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돈은 구체적이면서도 손쉬운 보상 수단이자 정의 실현의 도구가 된다. 일례로 창세기 20장 16절에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돈을 주어 사라에 대해 보상한다. “내가 은 천 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으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인간관계가 보상을 통해 즉, 돈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다. 물론 돈은 차선책에 불과하며 미흡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만큼 현실적인 해결책은 없다. 성경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돈으로 보상하도록 한다. 출애굽기 22장 16,17절은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피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벌지니라”고 기록한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비례적 정의, 서수적 정의, 보상적 정의로 구분하였다. 돈은 이 중 보상적 정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비례적, 서수적 정의는 유사한 가치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데, 인간 사회에서는 서로의 이해가 다른 경우가 너무 많다. 만약 내 가족들이 이웃의 밭을 망쳐 놓았다면,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이처럼 서로 이해가 다른 관계에서의 정의 실현은 대부분 보상적 성격을 갖는다. 섭섭함 등 사람들 사이의 감정적 문제도 돈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돈은 정의로운 인간관계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세 번째로, 돈은 올바른 물질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돈은 모든 것들을 동일한 척도로 평가한다. 따라서 상품들의 가치를 비교·관리할 수 있게 된다. 회사가 잘 경영되고 있는지는 결국 돈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종의 관리 책임은 돈에 기초한 것으로 나타난다. 에덴동산에서도 인간은 관리 책임을 맡았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고 기록한다. 이사야 62장에 따르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사람들은 자기 집과 포도밭을 관리하게 된다. 물질을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회계가 뒤따라야 하며 여기에 돈은 필수적 요소이다. 결론적으로 돈은 인간의 삶에 윤택유와 같은 존재이며, 모든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하다.

성경은 돈에 대해 가르쳐주는 유익한 교과서이다.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성경을 통해 돈의 기능을 잘 파악하였고 금융 분야를 개척해왔다. 돈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보존 기능과 교환 기능에 대하여 신명기 14장 24~2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네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돈을 지불하고 산 물건이나 권리는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얻은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보장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 را를 매장하고자 은 사백 세겔을 주고 산 헤브론의 땅은 수천 년이 지나고, 그곳을 지배했던 왕들이 수없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받고 있다. 야곱은 에서에게서 장자의 권리를 팔죽 한 그릇에 샀다. 장자의 권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돈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보이지 않는 권리를 돈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유대적 사고방식은 오늘날 특허권이라는 상품 가치를 만들어 냈다.

성경에서 성년은 돈을 스스로 관리할 줄 아는 나이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출애굽기 30장 14~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이십 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즉, 20세 이상의 성년이 되어 치루는 성년식이란 돈을 하나님께 스스로 드리는 것이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년식을 돈을 주고받는 날로 기념하고 있다. 돈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성년의 기준으로 본다는 것은 돈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준다.

경제동물이 아니라 경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돈에 대한 성경적 교육이 절실하다.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모든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란 곧 돈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임을 잊지 말자.



황인서 독일 쾰른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다. 한국 기독교 경제학회 회장(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학회이사이며 기독교학문연구회 경제/경영 분과장으로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독일 통일 이야기』(야스미디어), 『경제와 신앙』(시그마프레스), 『세상을 이기는 30가지 경제 마인드』(행복한 집), 『경제발전과 경제윤리』(서광사) 등이 있다.

교회, 돈을 어떻게 쓸까?

교회와 사회적 기업

이윤재 (송실대 경제학과 교수)

1. 왜 교회는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하는가?

약자를 돌보는 것은 교회의 기본적 사명 중 하나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신 10:17-19)를 돌볼 것을 강조하는데, 이들은 당시의 대표적인 경제적 약자들이었다. 또한 성경은 기본적으로 경제 공동체 정신을 강조한다. 즉 개인보다는 가족(지파) 단위의 민족 경제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다.¹⁾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 여러 모양으로 주변의 경제적 약자를 돌보는 교회의 구제 프로그램으로 계승되고 있다.

구약성경은 거듭 경제적 약자를 돌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신 12:28~29은 제3차년도의 십일조를 지역 공동체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동일한 명령이 신 14:29과 26:12에서도 반복된다. 십일조는 본래 기업(lot)이 없는 레위인의 생계와 성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도입된 것이었는데, 여기에 언약 공동체 내의 가난한 자를 돌보는 복지적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가 경제적 약자에 관심을 갖고 복지 지출에 적극적으로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신 15:11에서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고... (중략) 네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가난한 자가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면서 빈곤 해결을 위한 노력과 복지 문제가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 즉, 가난한 자들이 우리의 이웃임을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돌보라는 것이다.

2. 사회적 기업: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나?

오늘날의 한국교회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직접적인 재정적·물질적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혜적인 복지는 대상자들에게 의존적인 성향을 길러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혜 받는 계층의 자존감을 살려주면서 자조적인 생활 기반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즉, 물고기를 직접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구제금이나 현물을 직접 전달하기보다는 창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문적

1) 이 점은 오늘날의 개인 단위 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오늘날 현대경제학은 개인(소비자 및 기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강조하고, 개인의 효용극대화(소비자의 효용극대화 및 기업의 이익극대화)가 곧 사회적인 효용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경제학은 개인이나 개별 기업의 이익극대화에 기초한 개별경제(필자는 Meconomy로 명명함)이다. 반면에 성경은 철저하게 경제공동체(필자는 Weconomy라 명명함)를 강조하고 있다. 가나안 입성 후에 토지도 개인에게 분배된 것이 아니라, 지파를 중심으로 가족 단위로 배분되었다.

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오늘날의 경제 상황은 구약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다기(複雜多技)하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성도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처럼 사회적 공공성과 기업의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데 적합한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다.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면 자립적인 복지가 가능케 된다. 경제적 약자들은 대개의 경우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고질적인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거나 지체장애, 또는 알코올 및 마약중독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취업이 힘든 사람들이며, 따라서 소득 수준이 낮아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정부나 교회 및 NPO(비영리조직) 등의 복지 프로그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기업을 만들자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기본 취지 중 하나이다. 사회적 기업은 정상적인 노동시장에서는 흡수되기 힘든 이들을 고용함으로써 복지 재원도 줄이고 그들의 경제적인 자립도 돕는 혁신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²⁾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7월 1일 사회적 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래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정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정부주도형 사회적 기업이며, 2011년 말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주관 정부인증 사회적 기업은 644개, 각 지자체 주관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은 1,398개가 활동 중에 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지역에 153개(23.7%), 경기 지역에 113개(17.5%)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사회적 기업의 성공은 지속적인 경영이 관건이다. 즉, 고용을 유지하고 최소한의 운영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해내야 한다. 사회적 기업도 일반 기업 못지않은 혁신을 요구한다.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므로 어떤 면에서는 더 적극적인 혁신-이를 사회적 혁신social entrepreneurship-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단체로는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협회 및 민간 비영리조직(NGO, NPO 등)이 있다. 이제 교회도 사회적 기업에 관심과 지원을 쏟을 때이다. 그 이유는 사회적 기업과 교회가 이웃 사랑이라는 기본적인 비전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물질 등으로 후원하는 것도 물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자립이 가능한 계층에게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은 더 바람직하고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교회는 다양한 재능을 지닌 전문 인적 자원이 풍부한 곳이며 이웃 사랑과 봉사 정신으로 무장된 비영리 조직이기에 사회적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

아직은 교회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도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미 일부 교회가 주도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 육성하여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새터민(탈북자들)을 고용하여 박스를 제조하고 있는 “메자니아이팩”이다. 메자니아이팩은 2008년 12월에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하여 2009년 5월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았으며, 현재 총 고용인원 40명 중 22명이 새터민(2010년 2월 기준)이며 자본금 5억 원의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메자니아이팩은 탈북자의 자립을 위해 “높은뜻 송의교회”(설립 당시 김동호 목사)에서 동교회의 “열매나눔재단”을 통해 세운 기업이다. 매달 5천만 원 이상의 적자가 났지만 재정적인 지원을 멈추지 않았으며, 나중에는 외부 지원(노동부, 통일부 및 SK그룹)을 받아 성공할 수 있었다. 이것은 교회가 지원과 협력의 중심에서 교회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 자본을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을 성공시킨 대표적인 예이다. 높은뜻 송의교회는 구약성경에서 강조

2) 사회적 기업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윤재 외, 『나눔과 상생의 경제: 사회적기업』, (2012) 참조할 것.

하고 있는 나그네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사회적 기업을 통하여 성공리에 수행한 셈이다. 사회적 기업은 수익성 전환기까지의 초기 운영자금과 경영 컨설팅을 필요로 한다. 교회가 이러한 초기 운영자금과 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면 사회적 기업의 자립 및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교회가 장학재단을 만들어 장학생을 지원하는 것처럼 별도의 비영리재단(일례로 높은뜻 송의교회의 열매나눔재단)을 만들어 사회적 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준다면 가능할 것이다. 열매나눔재단을 통하여 창업된 사회적 기업은 메자니아이팩뿐만이 아니다. 메자니아코원, 고마운 손, 블리스&블레스, 고마운 사람들 등 5개에 이른다.



현 시점에서 교회는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구제사업의 외연을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것 역시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이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선교도 이루어질 것이다. 교회가 실질적으로 많은 구제활동을 벌이고 있음에도 과소평가 받고 있고, 심지어 반 기독교적 정서까지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방식을 혁신해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그 중 하나이다. 그러나 기업 경영은 전문적인 영역이며 전적으로 기업 경영에 헌신해야 한다. 또 교회와 기업은 그 본질이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윤재 1991년 이후 지금까지 송실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 송실대학교 기획처장이다. 송실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경제학박사이다. 현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회원이며 기독교학문연구회 경제/경영분과 위원장 역임한 바 있다. 주요 저서로는 『성경속의 경제학』(2004), 『사회적 기업 경제』(2010), 『시사와 함께 하는 거시경제학』(2011), 『나눔과 상생의 경제: 사회적기업』(2012) 등이 있다.

부유한 성자는 없을까?

“깨끗한 부자, 가난한 성자”에 대한 서평

◎ 조성표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기독교세계관연구소 소장)

성경적으로 재테크 하시는 분을 소개해 달라는 한 목사님의 요청이 있었다. 주로 직장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들에게 성경적인 사례를 소개해 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해외에서 큰돈을 벌여 사업과 선교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생각났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사둔 땅이 큰 폭으로 올라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분이였다. 또, 많은 돈을 벌어서 이에 대해 책을 쓰신 전도사님도 있었는데, 이분 역시 부동산으로 돈을 버신 경우였다. 두 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랐다가 부자가 되었고 이를 하나님의 사역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성경에 따른 모범적인 사례로 보기는 어려웠다. 모든 사람이 어느 땅을 살까 하나님께 응답을 바라고 기도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물론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여 재산을 모은 분도 계시고, 모범적인 경영으로 많은 기업을 일으켜 거부가 된 분도 계시다. 그런데 이처럼 차근차근 돈을 모은 분들은 그다지 화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소개해 보았자 그다지 흥미를 끌지 못할 것이었다. 회계학 전공인 나 자신도 성경적인 사례를 찾을 수가 없어 목사님께 “그런 분을 찾을 수 없네요.” 고백하고 마무리 하였다.

“깨끗한 부자, 가난한 성자”는 “왜, 목사들은 돈 문제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습니까?”라는 교회 성도님의 강요(?)에 의해 목사님이 쓰신 것이라고 한다. 머리말에 나온

대로 일반 사람들은 아침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눈을 뜨고, 하루 종일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뛰어 다닌다. 그러다 보면, ‘이거 하나님의 사역을 제쳐 놓고 나만의 이기심을 위하여, 불의한 재물만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죄만 짓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책이 들곤 한다. 차라리 직장 일을 제쳐 놓고, 전도를 나갔다면 참으로 복 받을지 모르는데 말이다.

“왜, 목사들은 돈 문제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습니까?”라는 호통을 들었을 때, 목사이자 신학자인 저자는 적잖이 당황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성스러운 신학에 종사하시는 목사님께서 가장 속된 영역의 상징인 시장판(market place)에서 날라 다니는 돈에 대하여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재물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이 700구절이 넘는다. 성경의 구절들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가장 많은 주제는 예상대로 “사랑”이며, 그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것이 바로 돈이라고 한다. 성경이 가장 속된 주제인 돈을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다니 놀랍지 않은가?

이처럼 성경에서 돈을 빈번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삶에서 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돈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따라 돈을 벌고, 보유하고, 사용해야 할 것이다. “깨끗한 부자, 가난한 성자”는 바로 이러한 요구에 의해 쓰여진 책이다.



양낙홍 저 | IMP

제1부는 몇 년 전 논쟁이 되었던 청부론과 청빈론에 대해 언급한다. 저자는 김동호 목사의 청부론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삶에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보다는 주로 인격과 도덕성에 관련된 일로 묘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영봉 목사의 청빈론은 “가난을 이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리스도인 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심지어 죄의식을 유발하는 점이 없지 않다”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선물을 누리는 것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것이라”는 칼뱅의 견해를 인용했다.

제2부에서는 성경적 복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구약의 상징적인 복과 신약의 영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부를 비롯한 현세적 복은 참된 복의 모형이요, 상징”으로 우리가 기대해야 할 실제적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영적 행복이요, 오는 세상의 복락”이라고 결론을 맺는다.

제3부는 이 책의 핵심 부분으로 부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탐심을 이기는 자족, 염려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과의 나눔(나눔은 제5부에서 언급하고 있다)을 제시한다. 이들 세 원리는 부에 대한 성경의 핵심 원리로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읽어 보기를 권한다. 또 이 챕터에서는 십일조에 대한 신학적 근거도 제시하고 있다.

제4부는 우리 사회의 실제적인 문제인 일 중독, 이윤 추구, 목회자와 물욕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제5부에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부자들의 의무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나눔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가짐(소유), 누림(향유), 나눔(공유)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소유는 있는 바를 죽한 줄로 아는 자세, 누림은 절제 속의 향유, 나눔은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여야 하는 의무임을 재차 강조하며 결론을 맺는다.

“깨끗한 부자, 가난한 성자”는 부에 대한 성경의 견해를



조성표 현재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이며, 본 동역회 기독교세계관연구소 소장이자 대구 성덕교회 장로이다. 전공은 재무회계 및 연구개발회계로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관련된 역사 및 저서로는 『돈걱정 없는 가정』(CUP), 『하나님이 가르쳐준 행복한 가정생활』(이상규, 정동섭, 양은순 공저: CUP), 『하나님 돈을 어떻게 쓸까요?』(박정운 공역: CUP), 『아직도 계속되는 꿈』(6인 공저: CUP), 『완전한 성공 1, 2』(11인 공역: CUP), 『공학회계』(명경사), 『비영리단체/비정기구의 전략경영과 기금개발』(예영커뮤니케이션), 『일수록 행복해지는 돈의 비밀』(CUP), 『IFRS 중급회계』(경문사) 등이 있다.

탐색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신학자들이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실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성경적인 원리를 제시하면, 우리 같은 경영·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성경적 기초에 입각하여 실제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모으고, 어떻게 돈을 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영성학자인 리처드 포스터도 가장 세속적인 주제라는 “돈, 섹스, 권력”에 대한 책을 기술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그만큼 우리 삶에 밀접하고 중요한 것이면서 우리를 타락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에 대한 명확한 실천 지침을 설정하는 것은 쉬운 작업도 아닐 뿐 아니라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각각의 삶마다 차이가 있어 획일적인 지침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으로 부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실천하기 위한 실제적인 지침을 강구함에 있어 가급적 구체적이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precision without legalism),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 맞추되 타협하지 않는다(accommodation without compromise)는 포스터의 충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깨끗한 부자, 가난한 성자”를 내려놓으며, “부유한 성자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성경에는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등 신실한 부자들이 많지만, 이들을 성자로 보기는 어렵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가진 것이 없었다. 우리 곁에 부유한 성자의 모델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성자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난을 선택해야 하는 걸까? 이제 좀 먹고 살만 하니 새롭게 드는 고민이다.

알수록 행복해지는 돈의 비밀

◎ 오창섭 (서라벌대학 교수)



조성표 저 | CUP

그리스도인의 돈 문제는 우리의 일상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저자는 이 책의 저술 동기에 대해 돈이 우리의 일상과 영적 생활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돈에 매이거나, 혹은 부정하는 극단에서 벗어나 제대로 알고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돈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본연에 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크게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 저자는 회계학 교수이자 돈에 대해 전문가로서 돈에 소멸을 가지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는 돈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서 돈을 어떻게 벌고 쓰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과 같은 전문인 사역자들의 역할과 책무가 있다고 보았다. 폴 스티븐스가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에서 오늘날 모든 크리스천은 교회나 세상에서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자신들의 사역을 위해 구비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처럼, 성도들은 그들 고유의 사역을 개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성도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사역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구비될 때에 목사나 평신도가 다 같이 고귀함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2장은 돈이 하나님의 선물인지, 우상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을 조망하고 있다. 오늘날 돈은 모든 가치평가의 척도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돈에 대한 균형잡힌 관점을 소유하기 위해

성경의 여러 인물들, 예를 들면 솔로몬과 아브라함을 통해 재물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어리석은 부자와 부에 얽매인 젊은 관원을 통해서는 부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다. 성경은 이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우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문제는 재물 자체가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릴 것과 재물을 대신 맡은 자, 즉 청지기로서의 삶의 자세를 강조한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에만이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물질에 대해 온전한 헌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다가온다.

3장에서는 사람들이 왜 부를 가지려고 애쓰는지 부에 대한 열망의 이면에 감추어진 불안 심리와 그 원인에 대해 밝히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넘쳐나는 시대에 과소비가 사회에 만연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무분별한 카드 남발과 카드광고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경고한다. 특히 신용사회가 반드시 장밋빛 미래만을 담보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통계자료와 미래학자의 예언을 통해 조목조목 짚어주고 있다. 돈을 벌면 행복해진다는 현대 사회의 조급증과 이로 인한 물신주의에 대해 경고하면서 믿는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자신의 직업적인 능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과 신중

한 재정관리라는 것이다. 특히 베푸는 삶이야말로 인간의 내면에 감추어진 불안감을 해소하며 영적 평안에 이르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4장에서는 돈이 주는 영적인 풍성함의 성경적 원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두 가지 이유를 가족들의 기본적인 필요 충족과 하나님 사역에 대한 동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먼저, 가족의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창조 원리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라는 것을 저자는 강조한다. 아울러 재물을 소비하는 두 가지 동기를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물건을 구입하기 전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볼 것과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재물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할 것을 충고한다. 재물의 두 번째 용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곧, 헌금과 나눔 두 가지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파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헌금 외에 교회안의 성도와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나눔은 모든 성도들이 훈련이 되어야 하는 실천원리이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웃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구제에의 요청은 오늘날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필수적이다(신 15:11; 히 13:16; 딤후 6:18). 결국 자신의 필요에 해당하는 한 그릇, 두 그릇은 자신이 먹되 그 이상은 이

웃에게 베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딤후 6:8)' 자족하면서 나누어줄 수 있는 영적 풍성함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장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가정에서의 재정관리이다. 가정이란 현장에서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관리되어야 하는지 성경의 원리와 저자의 경험을 통해 날카로운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특히 가계부의 영적 바로미터로서 부부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창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자녀들에게 바른 재정 습관을 심어주기 위한 부모의 모범과 건전한 소비습관 교육을 강조하면서, 탐닉적인 소비나 쇼핑 중독 등 돈 쓰는 범위와 과소비의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할 것과 돈이 주는 영적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일조를 드리라고 조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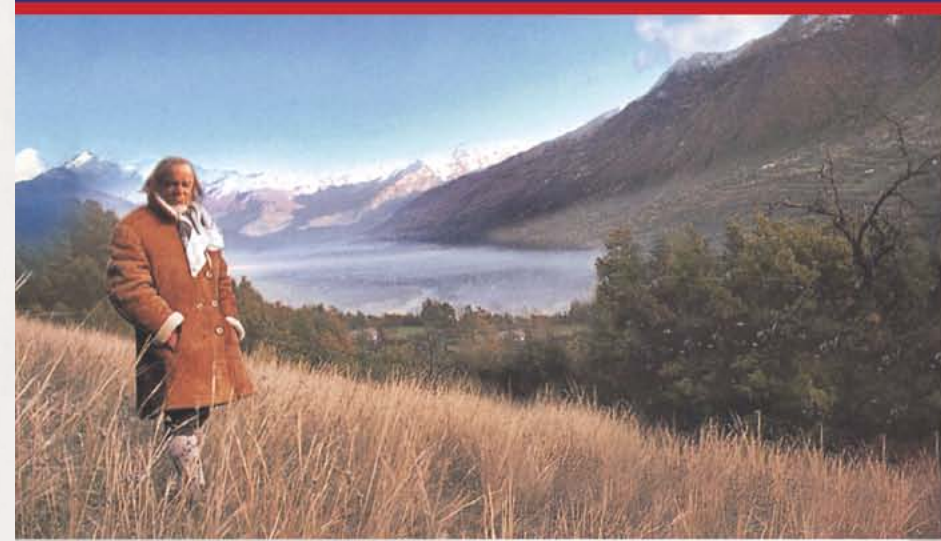
5장은 돈을 관리하는 방법, 특히 재테크와 투자요령, 보험 가입, 노후대비에 이르기까지 지혜로운 재물사용에 대한 재정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이 장에서 저자는 재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직업적 능력을 유지할 것과 수입과 소비의 재정적 균형을 유지할 것을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그 외 식비와 경조사비, 사교육비, 통신비 등 가정에서의 불요불급한 소비항목들을 줄여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행복한 소비의 비결로서 절



프란시스 쉐퍼 Dr. Francis Schaeffer's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HOW SHOULD WE THEN LIVE?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 프란시스 쉐퍼 박사의 <서구 사상과 문화의 융성과 쇠퇴>에 대한 대서사 장편 다큐멘터리”

프란시스 쉐퍼 최고의 역작! 모든 현대 그리스도인과 지성인이 봐야할 세계관, 문화, 철학, 정치, 예술, 종교에 관한 역사적 필름

2 DISC
Total Running time
5시간 20분

Amazon customer 리뷰

“만일 당신이 기독교 변증학이나 철학의 역사에 대해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본 적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매우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쉐퍼 박사는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과거의 철학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라는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고 있다. 이 DVD는 종교적, 역사적, 철학적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화가 될 것이다.” ★★★★★

“이것은 프란시스 쉐퍼 최고의 업적이다. 쉐퍼는 여기서 차분하고, 능숙하고, 흥미있게 역사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그는 역사가 단지 아무 의미가 없는 끝없는 흐름이 아니라 어떤 곳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한다. 이 영화는 목회자와 신학생은 물론 일반 평신도들이 반드시 공부해야할 탁월한 교재일 뿐 아니라 역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문화의 역사를 공부하고자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자료가 될 것이다.” ★★★★★

“이 영화는 역사의 개관에 대한 지식, 그 이상을 담고 있다. 쉐퍼의 역사와 철학과 신학에 대한 이야기는 이 영화가 1970년대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역사에 대한 이해의 현대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유익한 지식과 통찰을 준다. 여기서 우리는 그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켰는지를 본다. 이로 인해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

Language : English / Subtitle : Korean / Colour 320 min

Disc1

- 에피소드 01 로마시대 (The Roman Age)
- 에피소드 02 중세 (The Middle Ages)
- 에피소드 03 르네상스 (The Renaissance)
- 에피소드 04 종교개혁 (The Reformation)
- 에피소드 05 혁명시대 (The Revolutionary Age)

Disc2

- 에피소드 06 과학시대 (The Scientific Age)
- 에피소드 07 비이성의 시대 (The Age of Non-reason)
- 에피소드 08 파편화 시대 (The Age of Fragmentation)
- 에피소드 09 개인적 평화와 부요의 시대 (The Age of Personal Peace & Affluence)
- 에피소드 10 단 하나의 대안 (Final Choices)

Bonus Interviews

- 인터뷰 1 세상을 다시 살리기 - 고통과 질병이 함께 하는 삶
- 인터뷰 2 라브리과 우리 삶에 대한 주님의 인도하심



제있는 소비생활을 할 것과 물건을 사기 전까지 한 달을 기다리는 '한 달 규칙', 연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 중고품 구입요령에 이르기까지 저자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지혜와 통찰력이 독자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한편 꼭 알아야할 투자의 원리로서 여윌 돈 투자와 위험에 대한 고려, 분산 투자 등 일반적인 투자원리 외에도 하나님에 대한 영적 투자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영적 투자에 있어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성경말씀에 근거하여 돈을 미리 떼어 놓아 현금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라고 권한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비결이며 영적 평안함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축과 투자가 믿음이 부족한 행위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후 아이들의 교육이나 미래의 소득 감소, 우발적인 일들에 대비하기 위해 소득의 일부를 저축해 투자하는 것은 비성경적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중요한 것은 투자의 동기와 자세라는 것이다. 정당한 목적 없이 돈만을 축적하려는 투자는 맘몬 우상을 섬기는 것일 수 있지만 저축, 투자, 보험, 교회의 건축헌금 등과 같이 개인이나 교회가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행위가 아니라 지혜롭고 합리적인 자세라고 강조한다.

6장은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영적 평안에 이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재물을 단순, 소박하게 대함(Simple Life)으로써 재물에 대한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을 강조한다. 불필요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고 작은 물질이라도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상태가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다. 재물은 우리에게 편안함은 주지만 평안은 주지 못한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오창섭 현재 서라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며 대한지방자치학회 이사이자 한국복지행정학회 이사이다. 저서로는 <세계 풀어서는 행정학>, <사무관리론>, <자원봉사의 이론과 실제> 외 다수가 있다. 현재 대구지방 IVF 이사이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 위원회 위원, 대구 동도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다.

그런 연후 마지막으로 도전한다.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잡기 위해 일하고 있는가?', '앞으로 진정으로 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돈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를 떠나간다. 우리의 생명 역시 잠시 살다가 가는 것이다. 재물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영원한 상급을 주지도 못한다.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에 가치를 두고 살아서 꽤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결국은 그 생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 재산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히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잠 23:5)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쓰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중요하다. 돈을 하나님을 위해 잘 쓰는 것은 곧 신앙의 표현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하다. 이 땅에서의 축복과 내세에서의 축복이 함께 약속된 돈의 사용의 비밀에 대해 알려 주는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읽고서 함께 도전받기를 소망한다.

“부부 문제 솔루션” 프로그램에 빠져있는 솔루션

● 박진규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 이런 프로그램은 부부간의 대화법, 소통방식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어딘지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문제 부부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짚어내거나 그에 대한 해결책은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텔레비전에는 “부부 문제 솔루션”이라 불리는 프로그램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말 그대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해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년 전 MBC에서 <사후후愛>라는 이름으로 방송되던 프로그램이 그 시작이었는데, 이 제목은 드라마 <부부클리닉-사랑과 전쟁>이 유행시켰던 “4주 후에 뵙겠습니다”라는 대사에서 따왔지요. 지금은 채널 A의 <그 남자, 그 여자>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mbn이 <남과 남 사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 앞으로 유사 프로그램 몇 개가 더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부 문제 솔루션을 표방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비슷한 포맷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실제 부부들의 생활을 소개합니다. 제작진이 장시간 부부의 일상을 지켜보거나 카메라를 설치해 문제와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폭력, 알코올 중독, 의치중/의부중 등 부부들이 들려주는 가정 이야기는 답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곤 전문가들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주로 상담, 행동 프로그램, 심리극, 가계컨설팅, 최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하지요. 마지막으로 부부가 앞으로의 노력을 다짐하며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부부가 실제 겪을 수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이 됩니다. 부부간의 대화법, 소통방식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어딘지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문제 부부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짚어내거나 그에 대한 해결책은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례 가정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어려운 형편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간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힘겨운 삶과 부부관계의 문제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이

들의 부부 문제에서 가장 큰 원인은 “돈”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런 가정에서만 사례를 신청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경제적 빈곤과 가정위기 사이의 관계는 결코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이혼율은 다른 계층보다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조사에서는 고소득인 강남권 지역의 이혼가구 비율은 2.9%로, 저소득 지역인 서북권의 4.0%, 동북권의 3.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기본 조건 중 하나인 건강도 경제력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인 계층의 우울장애 위험도를 1로 잡았을 때 200만원 미만 계층의 위험도는 2.3나 된다고 합니다. 소득 최상위 20% 그룹의 흡연율은 47.83%이고, 최하위 20% 그룹은 64.59%라고 합니다. 또 월 소득 1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의 혈중 납농도는 월 소득 500만 원 이상 가정 아이들보다 13%가량 높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가정의 행복과 돈의 관계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단지 돈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의 중요한 조건으로서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부의 문제를 개인적, 심리적 요인으로만 설명하려는 부부 문제 솔루션 프로그램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솔루션들은 부부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아닐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보다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건 텔레비전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영상과 재미를 무시할 수 없는 텔레비전에게 사회구조의 문제를 건드리고 깊숙이 파헤치는 건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



입니다. 애초부터 변화를 이야기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매스미디어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올 한해 우리는 가족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가족과 부부의 의미, 가족 구성원의 역할, 노년, 교육, 결혼 등을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고,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개인과 교회의 노력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에 관한 이야기들에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 근본적인 해법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다면, 교회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텔레비전을 닮았다는 비판 앞에 당당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박진규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공분야는 “미디어와 종교”로서, 종교와 미디어라는 두 개의 개별 영역이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지점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영희, 삶의길 2002-1-2, 51x90.7cm, 캔버스에 유채

이영희, 하늘로 가는 도정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

이영희의 그림은 옛적에 익히 보았던, 한적한 시골길을 연상시킨다. 이제는 웬만한 시골의 외진 곳까지도 포장되어 있어 예전과 같은 정취를 느끼기 힘들지만 지금도 산간벽지를 가면 접할 수 있는 정겨운 풍경이다. 그의 그림은 약간의 축약과 변용을 거치지만 대체로 실제의 모습에 바탕을 둔 실경(實景)이다. 주위의 갈대와 야생의 들풀에서부터 가뭄으로 메마른 땅, 불탄 흔적들, 비포장길의 돌멩이들, 길가의 들풀, 그리고 하늘이 현장감 나게 재현된다.

작가는 실물과 마주할 때 느끼는 개인적인 환상이나 감정이입을 제어한 채 자연경관을 차분히 옮겨내고 있다. 현란한 솜씨로 관자의 눈을 빼앗기는 쉬울지 모르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어려운 법이다. 그러나 그는 눈에 익은 정겨운 풍경 가운데 보는 이로 하여금 무언가를 생각케 하는 여운

이영희 중앙대학교 회화과와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상갤러리, 노암갤러리, 조선화랑, 사비나갤러리 등에서 12차례의 개최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초대전 및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및 신미술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을 남기는 것이 그의 그림의 특징이다. 보면 볼수록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어떤 의식의 심부로 따라 들어가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수십년간 사생으로 담금질된 기량이 밑거름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에 대한 깊이있는 통찰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작품의 탄생과정은 나그네의 여정처럼 어렵고 힘들다. 그가 넓고 큰 길은 선택했다면 우리는 이런 작품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작가는 지금도 좁은 길을 따라 진액이 빠지는 듯한 수고를 그림에 쏟아 붓고 있다.

그의 그림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선명한 지평선이다. 지평선을 분기점으로 하늘과 땅이 갈린다. 두 세계는 언뜻 보아도 대조적이다. 마치 하늘이 희망과 환희를 드러낸다면, 땅은 험난한 인생길을 예고하는 듯하다. 땅의 꼭짓점에 하늘이 위치하며 지평선 쪽으로 갈수록 색조가 밝아지고 광채가 흘러나온다. 어떤 지형학적 모습을 재현하기보다 심층적 의미를 지닌 것임을 직감할 수 있다.

먼저 대지 쪽으로 눈을 돌리면, 화면에 등장하는 길은 포장되지 않은 진흙땅이거나 돌부리가 솟아오른 맨땅이다. 주변은 온통 황무지와 잡풀, 그리고 늪지대로 둘러싸여 있다. 길 위는 주로 자갈과 진흙더미로 울퉁불퉁해 걷는 게 수월치 않다.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육체적 노고와 심리적 부담감을 요구한다. 새까만 터널 끝에 희미한 불빛이 어른거리는 것처럼 시선을 돌리면 아주 청명하고 깨끗한 하늘이 보인다. 그러나 그곳은 눈대중으로 보아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그곳에 닿으려면 얼마나 더 많은 수고를 지불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작가는 색채와 구도를 단순화하여 길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화면을 이등분하는 것은 처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화가들로서는 가급적 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그가 이처럼 길을 강조하는 것은 그림의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된다. 그건 그의 그림제목에 〈삶의 길〉이라고 붙인 데서 알 수 있듯이 삶의 진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것이 어떤 '삶의 길'인지 들여다보자. 길은 사람과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 길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길 위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지나다녔을 것이다. 나그네서부터 장터로 나가는 아낙네, 일하는 농부들, 통학하는 학생들, 소식을 전하는 우편배달부 등등. 길은 사람 때문에 닦여졌고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화면에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도 길이 엄연히 '인생의 메타포'로 기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측하건대 작가는 '인생은 순례'라는 마음으로 〈삶의 길〉을 표현한 것 같다. 그는 인간은 "태어나면서 시작되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길"로 이루어진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실제로 그가 표현하려고 한 것은 우리의 인생여정임을 알 수 있다.

"가파른 언덕길을 힘겹게 오르는 것처럼 삶의 하루하루는 그렇게 시작되는가?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미래에 대한 무언가를 갖고 삶의 길을 가고 있다."(작가 노트)

단테의 '신곡', 호머의 '오딧세이', 버질의 '아이네이드', 존 번연의 '천로역정',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



이영희, 삶의길 2001-3, 59.8x116cm, 캔버스에 유채



이영희, 삶의길 2001-6, 72.7x116.8cm, 캔버스에 유채



이영희, 삶의길 2001-3-6, 45.5x72.7cm, 캔버스에 유채

의 모험에 이르기까지 인생은 여행, 항해, 탐험, 순례, 개인적 방랑으로 구성된다. 인생의 여행이란 마치 공중 곡예사가 그네를 떠나 맞은편에 있는 다른 곡예사의 손을 잡기 위해 공중에 떠 있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위험과 긴박함, 불확실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다. 미지의 세상에서 낯선 대상과의 만남이 흥미롭기도 하지만 거기에 이르려면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댓가를 치러야 할 때가 종종 발생한다.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중도에 포기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을성 많은 『천로역정』의 주인공처럼 앞으로 가는 일뿐이다.

여행의 마침표는 사람이 찍는 것은 아니다. 믿음의 여행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잘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다가 실족하고 시험 드는 모습이 역시 길위의 삶과 같다. 작가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힘겨운 발걸음을 내딛고 또 내딛으면 저 멀리 하늘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작가가 나타내는 길은 천상으로 가는 징검다리인 셈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일상이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무의미한 과정만은 아닐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

에 의하면, 지상생활은 거추장스런 걸림돌이거나 우리가 영원히 머물만한 완성된 나라가 아니다. 나 자신을 부단히 성숙시키는 곳인 동시에 혹시 어떤 사람이 위험에 빠졌다면, 그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부축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현실이란 유진 피터슨(Eugene H. Peterson)의 표현처럼 “형제도 갖추지 못한 쇠붙이를 두드려 쓸모 있게 만드는 대장간”같은 곳이다. 그러면서도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일은 계속된다. 그곳에서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희의 <삶의 길>은 돌부리와 자갈, 그리고 진흙과 거친 땅으로 얼룩져 있다. 순례의 길이 결코 여의치만은 않다는 이야기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인생은 뜻대로 되는 일보다 되지 않는 일이 더 많고 괴롭고 힘든 일이 더 많다. 만족보다는 후회가 더 앞서고 자신감보다는 좌절감에 빠지기 쉽다.” 그의 말처럼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 우리는 길을 잘못 들어 크게 낭패를 보기도 하고 피곤에 지쳐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만하게 장대에 올랐다가 뜻밖의 일 때문에 놀라거나 난관을 겪는다. 그러나 이 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고난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관문임을 배운다. 여행에서 좌초와 실종이란 있을 수 없다. 시련과 역경은 순례자라면 이미 대비하고 있어야 할 덕목과 같다. 그가 목적지를 ‘아련하게’ 처리하고 대신 길을 ‘뜨뜻하게’ 제시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일 것이다. 믿음을 테스트하는 파도가 거셀수록 우리를 항구로 신속히 떠밀어준다. 성경의 구절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시 107:30)

성 어거스틴은 이 땅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순례길을 걷는” 자들이라고 일갈한 적이 있다. 그들이 떠나온 본향을 그리워하며 그곳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순례자는 소로이든 대로이든, 순탄한 길이든 험한 길이든 길을 통해 목적지에 이른다. 순례자는 지금 이 순간의 만족보다 미래의 만족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힘든 것을 참아낼 수 있다.

만약 순례자가 길을 잃는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된다. 물론 이렇게 되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고통은 궁극적인 것도 아니고 최종결론도 아니다. 길이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누구라도 여행에서 실족하고 만다. 그림은 우리에게 세상속에 일하고 지치고 고통을 당하며 죄를 짓는 중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란 사실을 환기시켜주는 것 같다. 그림의 주인공들은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는 부차적이다. 그들이 복된 나라로 향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렇듯 진정한 기쁨은 사소한 일의 집착에 있기보다는 복된 나라를 갈망하며 정해진 길을 부단히 걸어가는 데서 얻어진다. 미래에 있을 더 좋은 영광이 여행자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는 발걸음을 늦추거나 멈출 수 없다. 마치 우리를 위해 놓여진 길같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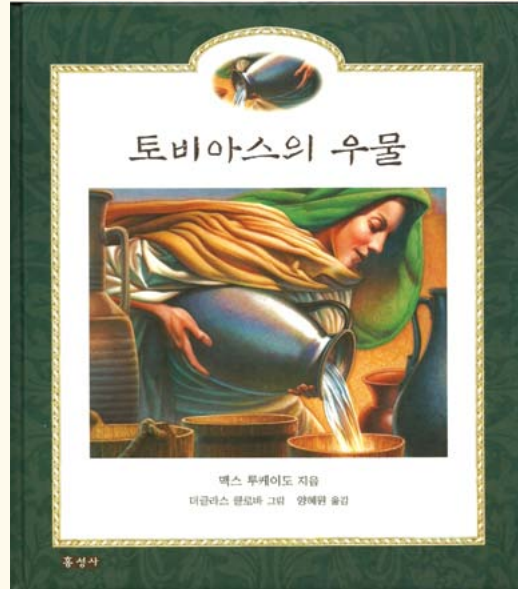


서성복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동서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저서로는 『한국 현대회화의 발자취』,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렘브란트』,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우리 미술 100년』이 있다.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선물

현은자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 성경 그림책에 대해 소개한다면
- 성경 그림책은 그림책의 형태로 그려질 때는 재화(retelling)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다시 말한다는 뜻의 재화(retelling)은 원래 구전된 옛 이야기가 채록되고 글로 쓰여지는 과정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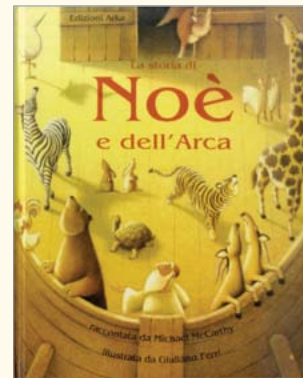


그동안 그림책 칼럼을 쓰면서 기독교 그림책에 대해서는 쓸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 이 주제로 올해의 그림책 컬럼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독교 그림책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의 이야기나 시, 기도문 등 성경 텍스트를 본문으로 하는 성경 그림책이며, 다른 하나는 픽션이나 논픽션과 같은 문학 장르를 사용하여 성경의 주제 혹은 진리를 전달하는 창작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성경 그림책에 대해 소개한다면 성경 그림책은 그림책의 형태로 그려질 때는 재화(retelling)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는 뜻의 재화(retelling)은 원래 구전된 옛 이야기가 채록되고 글로 쓰여지는 과정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성경 그림책에도 재화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이유는 그림책 장르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우선 글 텍스트의 경우 성경 텍스트를 짧게 줄이거나, 어린이에게 맞는 수준으로 쓰게 되므로 재화 형식을 갖게 되지만, NIV나 개역 성경 등 성경 텍스트를 그대로 사용할 때에도 그림으로 인물, 배경, 분위기 등을 묘사하여 글을 보충하거나 때로는 글보다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므로 재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그림책 작가들은 예술적 상상력을 사용하여 성경 안의 인물들을 구체화하여 생명을 불어넣고 그 이야기를 낯설게 하

여 성경 안의 감추어진 의미를 어린이 독자에게 전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그림책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쉬운 것은 우리 나라의 기독교 그림책 출판에 관한 것입니다. 1990년대를 기점으로 국내의 그림책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좋은 외국 그림책이 다수 번역되고 국내의 그림책 글, 그림 작가들이 발굴되어 활발한 창작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유독 기독교 그림책 분야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기독교 어린이 도서 시장의 열악함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그림책을 수집하면서 외국에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그린 그림책이 수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재화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탄하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작가와 어린이 독자가 가장 선호하는 성경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플롯도 매우 극적이면서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을 마음껏 그려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미권의 유명한 그림책 작가들은 거의 다 한번쯤 이 이야기를 그려내었을 정도입니다. 방주 안에서 동물들이 드리는 기도, 홍수 전에 식물들의 씨를 받아서 홍수 후 키워낸 노아의 아내 이야기 등 히브리 구전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별레의 눈으로 바라본 노아의 이야기,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가엾은 동물들의 이야기 등 작가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스토리가



있고 고전적인 목판화부터 현대의 컴퓨터 그래픽에 이르기까지 사용된 매체도 다양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지만 작가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으므로 성경 그림책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마이클 매카시가 재화하고 지올리아노 페리가 그린 「노아의 방주 이야기 (La storia di Noe e dell' Arka)」입니다. 대각선 구도가 지배적인 이 작품은 노아 가족의 하나됨과 이야기의 역동적인 면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이야기는 폭력이 만연한 이 세상과는 대조적으로 노아의 가족만은 평화롭게 노동하며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은 후 여덟 식구는 모두 힘을 합쳐 방주를 짓고, 방주가 완성되자 동물들은 들쭉 짝을 지어 방주로 들어옵니다. 비가 그친 후 방주 밖으로 나온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얼마 후 세 아들 부부는 각자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대부분의 성경 그림책 작가들이 노아의 신실한 신앙을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이 작품은 노아 가정의 여덟 식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작가는 모든 장면에서 빠짐없이 여덟 사람을 그려 넣음으로서 독자의 시선을 노아로 인해 가려졌던 다른 일곱 식구의 신실한 신앙으로 향하게 합니다.



기독교 그림책의 두 번째 유형은 은혜, 구원, 용서, 사랑, 회개, 언약과 같은 기독교 주제를 다루는 창작 그림책입니다. 이 범주에서는 「너는 특별하다」로 잘 알려진 맥스 루케이도의 작품이 좋은 예가 되겠지요. 그의 작품은 성경의 진리를 비유로 잘 그려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비유가 기독교 그림책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도 3000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 손에 들어온 성경은 비유의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비유를 말하고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으며 비유를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그의 책 <비유로 말하라>에서 비유가 하는 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비유로 말하면 듣는 사람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동참하게 된다. 눈에 띄지 않게, 심지어는 은밀하게, 비유는 듣는 사람을 끌어들인다. ... 비유(parable)은 문자 그대로 ‘__의 곁에 던져진 무엇’ 즉 para(곁에)와 bole(던져진)이 합성된 것인데, 그것을 본 우리의 첫 반응은 “이게 여기에 왜 있는 거야?”이다.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고, 상상한다. ... 비유는 보통 새로운 것을 말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년 동안 바로 앞에 있었는데도 우리가 간과한 것을 알아채게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혹은 우리가 그 의미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잊어버렸던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미처 깨닫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거기에 연루되고 만다.”

맥스 루케이도가 글을 쓴 「토비아스의 우물」은 비유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막 한 가운데에 있는 마을에 토비아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이 풍부한 우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들 줄리앙과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그 물을 나눠줄 뿐 아니라 그들 각자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토비아스와 줄리앙은 중 엘제비르에게 우물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엘제비르는 처음에



는 주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물을 마음껏 가져가도록 했으나 마을사람들이 고맙다는 말도 없이 물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부아가 납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만 물을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착한 사람들에게만 주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기준을 높여갔습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 중 물을 길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되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된다는 것을 안 마을 사람들은 엘제비르의 마음에 들기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목말라하는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그 마을에 들어오고, 엘제비르는 그에게도 트집을 잡으며 우물물을 주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머리에 쓰고 있던 수건을 천천히 벗고 자신이 물 주인의 아들 줄리앙임을 밝힙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물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뛰고 엘제비르는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못된 중에게는 물을 주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줄리앙은 “착한 사람들만 물을 마실 수 있다면 여러분 중 누가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엘제비르는 용서를 받았고 마을 사람 모두 우물물을 마음껏 나누어 마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공동체에 속한 독자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주인 토비아스는 하나님을, 그 아들 줄리앙은 예수님을, 중과 이웃 사람들은 독자인 우리를 비유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토비아스의 우물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창조 세계이며,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우리의 상상으로 그려낼 수 없을 만큼 크고 귀한 것일 뿐 아니라 신비로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받을만한 이유도, 가치도 전혀 없는 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후 2:22-23).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저희 교회에서는 매년 성탄절 전날 저녁에 전 교인이 본당에 모여 장미 자랑 비슷한 성탄 행사를 합니다. 작년엔 제가 우리 선교회를 대표해 이 그림책을 준비했지요. 그림을 스캔하여 PPT 자료로 만들어 강대상의 스크린 위에 크게 띄우고 그림책을 읽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 설교에서 하던 것이라 우리 교인들의 반응이 어떨지 염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애들이나 보는 그림책을 왜 들고 나왔는지 의아해 하실 것 같았고, 성탄절 공연을 위해 온갖 의상으로 치장하고 앉아 호기심이 가득찬 눈으로 보고 있는 꼬마들은 별로 화려하지 않은 그림과

이야기에 곧 흥미를 잃어버리고 떠들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기우에 불과했지요. 제목을 읽고 첫 장을 열어 읽기 시작하자 본당에 가득 찼던 성탄절 전야의 들뜬 분위기가 서서히 가라앉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어르신부터 유치부 꼬마들까지 온 교인이 모두 화면에 눈을 고정하고 숨을 죽이고 듣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동안 비유의 힘이 작용했던 걸까요? 그들은 엘제비르와 동네 사람들의 모습에서 각자의 모습을 발견했을까요?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행사가 끝난 후 여러 교인들이 다가 오셔서 은혜를 받았노라 인사하시고 손자에게 선물해야겠다고 책 제목을 묻는 분도 계셔서 무척 감사하였지요.

올 성탄절을 위해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아직 시간이 있다면 기독교 서점에 가서 크리스마스 그림책이나 좋은 성경 그림책을 찾아 온 교우들과 함께 즐겨보면 어떨까요? 혹은 손자나 자녀들에게 성경 그림책을 선물하면 어떨까요? 저는 가끔 한국의 크고 작은 교회 학교와 본당에서 혹은 독서토론 모임에서 기독교 그림책이 읽혀지는 모습을 그려 봅니다. 만약 기독교 그림책에 애정을 갖고 좋은 작품을 추천하고 구입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기독교 출판사와 그림책 작가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달란트를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은 그들의 달란트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기독교 문화는 더욱 풍성해 질 것입니다.

Merry Christmas!



현은자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이화여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표 저서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아동문학 보기」, 「기독교 유아교육을 위한 시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그림책의 이해 1, 2」, 「세계 그림책의 역사」, 「그림책의 그림읽기」, 「그림책과 예술교육」, 「즐거움 그림책 쓰기」가 있다. 성균관대 생활과학연구소의 그림책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성탄절을 의미 있게 맞으려면

●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교수, 세계관아카데미 소장)

최초의 크리스마스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의 성취였지만, 그 이후 크리스마스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의미를 되새기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성탄의 의미를 다음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째, 목자들에게 주어졌던 메시지로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실 구주의 탄생 소식이었습니다. 둘째, 동방박사들에게 왕의 왕이 오심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시므온과 안나가 고백한 성탄 메시지(눅 2:25)로, 복음의 핵심인 죄와 고통에 시달리던 인류에게 주는 평화와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는 구약에서 약속된 구원의 성취를 축하하며 그 의미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성탄절이 크게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축제는 상업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크리스마스뿐 아니라 추석이나 설날도 상업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문화의 중심이 “소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소비가 따라붙지 않으면 축제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이 팽배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도 쇼핑을 하고, 선물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심지어 교회와 성도의 가정까지 침투했습니다. 교회에서 선물을 주고 받고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행사도 중요하지만 성탄의 의미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지낸다면 문제입니다. 특히 크리스마스는 연말과 함께 오기 때문에 교역자들이나 열심히 봉사하는 이들에게는 부담이 매우 큼니다. 모두가 바쁘다 보면 성탄절이 매년 돌아오는 하루의 축제가 되어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연시준비로 인해 성탄절 준비에 소홀해서는 안됩니다.

성탄절 축하에 위로와 소망이 빠지고 즐거움만 남은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이 본래의 의미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목자와 동방박사,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했습니다. 수 천 년을 기다린 위로와 소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특별히 전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를 교회와 성도들 가정 내의 하루 행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복된 날로 삼았으면 합니다.

특히, 성탄의 메시지가 정말 복되게 들리는 곳으로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그 당시 가장 소외된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한 대단한 소식이 왕궁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크리스마스 문화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정말 기독교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이 오셨다'는 말을 전해주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상업화된 크리스마스 문화에 대해서는 교회가 무조건 비판하기보다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이러한 것이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알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대안적인 크리스마스 문화를 전해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 문화보다 훨씬 더 수준 있는 모습으로, 널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기회로 삼기를 기도합니다.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철학교수로 어버나 샴페인에 있는 일리노이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교수이며 본 단체 실행위원이자 세계관아카데미 소장이다. 저서로는 「변혁과 살림의 대중문화론」,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니고데모의 안경」(이상 NVP) 등이 있다.

크리스마스에 캐럴이 울리면...

성탄절하면 떠오르는 추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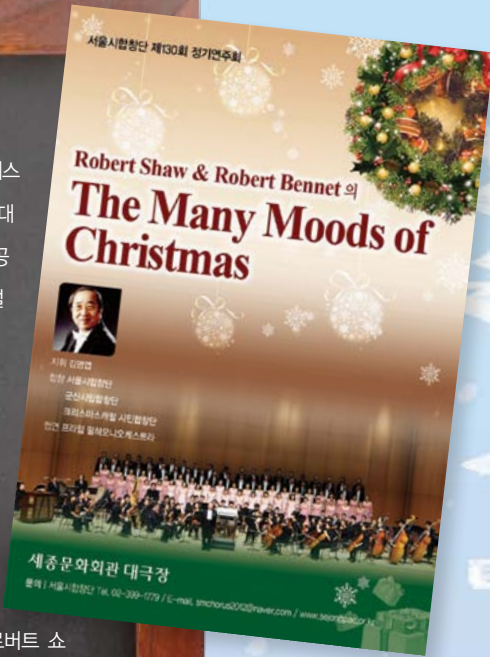
아마도 성탄 전야에 골목마다 울려 퍼지던 새벽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눈 덮인 골목에서 삼삼오오 함께 모여 언 손을 비비며 작은 촛불에 의지하여 조용히 부르던 새벽송. 그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된 성탄의 소식을 전하고, 믿는 자들은 성탄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지금은 성탄절 예배에서만 불리는 찬송과 캐럴.

월드뷰가 성탄절을 맞아 성탄절다운 성탄을 보내고자 "캐롤부르기 운동"을 소개하려 합니다.

캐럴 부르기 운동

서울시합창단의 제130회 정기 연주회 크리스마스 캐럴 페스티벌 "The many moods of christmas"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12월 10일(월)에 특별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 공연은 서울시합창단 김명엽 단장이 주도하는 전 국민 캐럴 부르기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캐럴이 익숙하지 않은 현대인들에게 다양한 캐럴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오디션을 통해 합창을 사랑하는 만 19세 이상의 서울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합창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시민합창단과 서울시합창단의 합동 공연으로 300여 명의 대합창단이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 멋지고 다양한 캐럴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합창의 신으로 칭송받는 로버트 쇼(Robert Shaw)와 로버트 베넷(Robert Bennett)의 관현악 편곡으로 엮여낸 크리스마스 캐럴 명곡 "The many moods of Christmas"의 아름답고 따뜻한 무대,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여러분을 찾아가입니다.



우리 함께 해요!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한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연구

기독교학문연구회(KACS_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Studies)

- 연구 발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춘계, 추계 연 2회의 학술대회 개최.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신앙과 학문> 발행.

세계관 연구소(Institute)

-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연구과제 발굴 및 진행 : 융합과제
- 2012년 연구과제: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독교가 미친 영향을 각각의 분야로 분석, 연구/ 지난 7월 발행



운동

월간 월드뷰 발행(WORLDVIEW)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제반 영역에서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보기
-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신간 서평 안내

세계관 운동(DEW_Disciples with Evangelical Worldview)

- 신문, 방송, TV, 인터넷, SNS 등 미디어 매체를 통한 영향력 확산
- 각 지역의 교회, 대학들과 연계하여 세계관 교육 확산

출판사(CUP_Christian University Press) 운영



교육

세계관아카데미(Academy)

-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기독교세계관 교육을 실시
- 교수, 교사, 목회자, 언론인 등 전문 직종별 아카데미 운영 (현재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운영중)

세계관 대학원(VIEW_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 기독교 역사상 종합대학에서 수여하는 첫 세계관 대학원 학위
- ATS(북미주신학교협의회)가 학위를 인정하는 북미주 최고의 프로그램

크리스찬싱킹센터(CTC_Christian Thinking Center)

- 초·중·고교생들을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기독교적 학문연구와 기독교세계관 운동에 뜻이 있으신 분들의 동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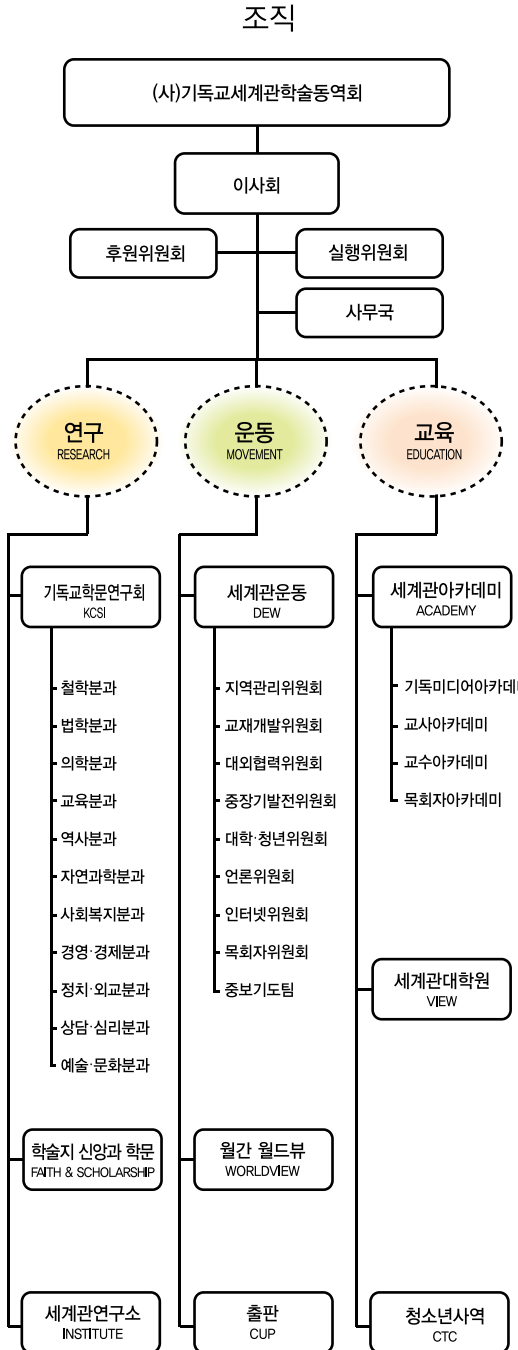
삶 속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년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 삶 속의 수많은 생각에 건강한 문화로 함께 풀어갈 것입니다. 함께 동역하여 주십시오.

*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를 이용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사무국 대표전화 02-754-80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합니다!

2012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 조직**
- 이사회**
- 실행위원회**
- 사무국**
- 연구**
- 기독교학문연구회 KCSI
 - 철학분과
 - 법학분과
 - 의학분과
 - 교육분과
 - 역사분과
 - 자연과학분과
 - 사회복지분과
 - 경영·경제분과
 - 정치·외교분과
 - 상담·심리분과
 - 예술·문화분과
 - 세계관연구소
 - 학술지 신앙과 학문 FAITH & SCHOLARSHIP
 - 출판 CUP
- 운동**
- 세계관운동 DEW
 - 지역관리위원회
 - 교재개발위원회
 - 대외협력위원회
 - 중장기발전위원회
 - 대학·청년위원회
 - 언론위원회
 - 인터넷위원회
 - 목회자위원회
 - 중보기도팀
 - 월드뷰 월드뷰 WORLDVIEW
- 교육**
- 세계관아카데미 ACADEMY
 -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 교사아카데미
 - 교수아카데미
 - 목회자아카데미
 - 세계관대학원 VIEW
 - 청소년사역 CTC
- 임원**
- 사단법인**
- 이 사 장 : 손봉호(고신대)*
 부이사장 : 김의원(백석대)*, 양인평(로고스법무법인)*, 오정현(사랑의교회)
 이 사 : 박상운(생명원)*, 양승훈(VIEW), 원동연(한국종합과학연구원)*,
 이강인(엘비전 대표), 이인용(삼성전자 부사장), 전광식(고신대)*, 조정민(CGN TV),
 조민재(국민일보), 한정화(한양대)*
 공동회장 : 김성수(고신대 총장), 김승욱(중앙대)*, 유정철(경희대)*, 조성표(경북대)*
 감 사 : 김승태(에영커뮤니케이션), 김원수(패션그룹 형지) 캐나다 순 / * 등기이사
- 실행위원회**
- 위 원 장 : 김승욱(중앙대)
 위 원 : 김승태(에영커뮤니케이션), 김원수(패션그룹형지), 김태환(명지대),
 김혜정(CUP), 신국원(총신대), 유경상(CTC), 유정철(경희대), 이진창(성균관대),
 조성표(경북대), 정희영(총신대), 차명실(재정 실무 담당), 최태연(백석대),
 최현일(샘여성병원), 한윤식(한동대)
- 후원위원회**
- 위원장 : 김원수(패션그룹 형지) 교회담당 : 강준근(한국성결교회)
- 기독교학문연구회**
- 학 회 장 : 정희영(총신대)
 부회장 : 국제협력_김종락(경북대), 대외협력_박문식(한남대), 학술_김태환(명지대),
 연구_유재봉(성균관대)
 감 사 : 김상득(경북대), 신현호(백석대)
 이 사 : 강영인(서강대), 김홍섭(인천시립대), 권태경(총신대), 윤완철(카이스트),
 장수영(포항공대), 조무성(고려대), 황호천(세종대) 외 12인
 분과회회장 : 철학_양상만(우석대), 경제/경영_황의서(서울시립대), 문화/예술_송태현(이화여대),
 정치/외교_백승현(경희대), 교육_김정희(이화여대), 법학_이국문(한동대),
 역사_권태경(총신대), 상담/심리_전요섭(성결대), 문학_정정희(중앙대),
 의학_최현일(샘여성병원), 사회복지_양혜련(총신대)
- 편집위원회
 위 원 장 : 이진창(성균관대)
 편집위원 : 계영희(고신대), 권정태(호서대), 김경민(전남대), 김동원(전북대), 김정호(국립한밭대),
 배용수(성균관대), 박신현(고신대), 신현호(백석대), 유지황(관동대), 이의영(군산대),
 조창근(조선대), 현창기(한동대)
- 세계관연구소**
- 소 장 : 조성표(경북대) 부 소 장 : 김홍섭(인천대)
- 세계관운동**
- 지역관리위원회_박신현(고신대), 조창근(조선대), 교재개발위원회_최태연(백석대),
 대외협력위원회_김승태(에영커뮤니케이션), 언론위원회_강진구(고신대),
 중장기발전위원회_정수균(신교사), 중보기도팀_유해신(좋은교회), 인터넷위원회_권오병(경희대),
 대학청년위원회_한윤식(한동대), 장갑덕(대전과학원교회), 이선일(울산소망교회)
 세계관목회자포럼_김정철(강남교회), 성백영(반포침례교회), 장갑덕(대전과학원교회)
- 월드뷰**
- 대표주간 : 손봉호(고신대), 발행인 : 김승욱(중앙대)
- 도서출판 CUP**
- 대 표 : 김혜정 마케팅 실장 : 윤여근
- 세계관아카데미**
- 소 장 : 신국원(총신대), 부소장 : 이승구(합동신대원대)
 미디어아카데미원장 : 조정민(CGN-TV)
 운영위원 : 강진구(고신대), 안종배(한세대), 임준택(경남대), 유지은(PD), 장유진(미코필름)
- VIEW**
- 원 장 : 양승훈(VIEW)
 이 사 : 조영택(뱅크버 코스타 이사장), 박신일(그레이스 한인교회 목사),
 김명준(뱅크버 지구촌교회 목사), 김주영(신세계보협)
- CTC**
- 대 표 : 유경상 팀장 : 한부의, 안성희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2, 11월)

회원후원

2천5백 김민지, 박진호 3천 구재형, 김성권, 김찬호, 김창현, 조성진 3천5백 월현, 강동훈, 김희원, 노승욱, 노주하, 백경은, 백석희, 정경식, 정세열, 진성자, 최승오, 최승오, 최월길, 하태실, 한민자, 한진영, 황보난이 5천 고은하, 구성덕, 구재환, 권명중, 권지연, 김원평, 김경식, 김경희, 김가용, 김기현, 김남진, 김대용, 김도희, 김미정, 김병국, 김봉우, 김성욱, 김성민, 김성은, 김승택, 김영운, 김정명, 김정심, 김정연, 김정준, 김준, 김준희, 김철수, 김태운, 김항아, 김혜창, 김효태, 박광재, 박기연, 박상균, 박승룡, 박준모, 박찬규, 박해일, 배기선, 배도환, 범경철, 손세용, 손영경, 손영일, 송동민, 송시섭, 송철호, 신기혁, 신찬웅, 심정하, 안현상, 양영태, 우수민, 유은자, 유창은, 유충열, 윤경숙, 윤종선,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명진, 이민화, 이승환, 이영홍, 이원배, 이윤희, 이은미, 이은미, 이은순, 이진영, 이한길, 이향연, 이항숙, 임선제, 임재영, 임준택, 임형준, 장옥경, 장현일, 전정일, 전중화, 전충국, 정수빈, 조은아, 조인진, 조혜경, 주경식, 지경순, 최광수, 최동희, 최우, 최우, 한배선, 허재일, 홍승기 7천5백 고상섭, 권오현, 김영옥, 민수진, 백은미, 이주희, 홍혜진 9천 임고은 1만 강은정, 강효식, 고은남, 고현경, 권민규, 권성아, 권순범, 김경원, 김경호, 김경희, 김고은, 김동우, 김성경, 김성상, 김성인, 김성찬, 김세령, 김세원, 김세중, 김영욱, 김영완, 김요한, 김원, 김은덕, 김은순, 김은혜, 김정일, 김정호, 김종국, 김종훈, 김진아, 김창현, 김홍섭, 나동훈, 남서희, 류화원, 마민호, 박강국, 박능안, 박대원, 박두한, 박영주, 박정옥, 박종원, 박진규, 박창우, 박혜경, 박희주, 서화진, 소종화, 손현탁, 송미정, 송종철, 신상형, 신성자, 신성혜, 신현주, 신호기, 안석, 양병국, 양행모, 오지순, 유건호, 유경상, 유영준, 유지황, 윤동수, 윤상현, 윤영희, 이경숙, 이계삼, 이관후, 이규현, 이길형, 이명동, 이명수, 이명숙, 이명현, 이문원, 이상수, 이상수, 이승엽, 이시영, 이연구, 이윤식, 이윤재, 이은자, 이은주,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종국, 이종철, 이준성, 이지연, 이한길, 이해리, 임영, 임일택, 임지연, 장승재, 장인숙, 장태준, 전병희, 전성규, 정상록, 정용수, 정은희, 정정숙, 정현주, 제양규, 조백현, 조용현, 주성철, 차정규, 최상훈, 최성두, 최영태, 최진우, 최진호, 최한빈, 추진연, 태영숙, 한인관, 한정호, 한혜실, 허찬영, 허현, 현승건, 홍순호, 홍철의, 황세환, 황태연, 황희정 1만5천 김신화, 김효순, 정상섭, 최동원, 최병호, 2만 강대훈, 김옥태, 김용식, 김인숙, 김정호, 김효숙, 노용환, 류익근, 박영혜, 배성민, 배은경, 변우진, 손항아, 양혜원, 안용준, 우시정, 이대환, 이명희, 전광학, 최용준, 한화진 3만 김동원, 김방룡, 김상범, 김승남, 박문식, 박상진, 박신현, 박연호, 서성록, 오익석, 우관석, 우병훈, 이대희, 이은실, 이창국, 임희옥, 장수영, 전요섭, 정동섭, 조무성, 조무성, 추태화, 황의서, 황정진 4만 이인주 5만 김민철, 김성락, 김시호, 김태환, 서진희, 송인규, 윤석찬, 정희영, 조성태, 채기현, 최현일, 한윤식, 현은자 6만 박민선, 정용수 7만 엄지은 1십만 김승태, 김원수, 김의원, 박상은, 손봉호, 양인평, 전광식, 최태연, 한정화 2십만 차명실 1십2만 강성준 3십만 김승욱 1백2십만 윤완철

기관후원

3천5백 생명의강, 영음사, 7천5백 영양교회 1만 개명교회, 빛과소금교회 5만 개봉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예심교회 6만 감신대도서관 1십만 군산성광교회,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다운공동체교회, 산정현교회, 상록회계법인, 새로나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덕교회, 신석교회, 언약교회, 자운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참빛교회, 2십만 국군중앙교회, 사랑의교회 3십만 100주년기념교회 5십만 사랑의교회 1백만 새로나교회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내역은 매월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 삶 속의 수많은 생각들을 풀어내는 유일한 기독교세계관 잡지 '월드뷰'.

'월드뷰'가 여러분 삶 속에 계속 할 수 있도록 함께 후원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법무법인(유) 로고스를 소개합니다!

로고스는 현대의 다양한 분쟁의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함은 물론 법을 통하여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국민과 인류에 봉사한다는 특별한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쌓아온 중견 변호사들이 합심하여 2000년 9월 1일 설립한 법무법인입니다.

로고스가 특별히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사)희망과 동행을 설립하였습니다. 장애인, 무연고노인, 탈북자, 다문화가정 등과 같이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질적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활동의 지속화와 국내외 공익기관의 활동 중 일정부분을 담당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모든 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른바 복지사회의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필요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활동 및 제도개선, 공익기관과 연계하여 공익활동을 전개합니다.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제반활동을 통하여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 하는데 있습니다.

<http://www.lawlogos.com/main/main.asp>



“로고스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합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와의 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로고스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2012년 11월 6일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등기 법무 업무 등 전반적인 법률문제를 지원하고,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학술회의 및 연구발표회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WORLDVIEW NEWS

총회 개최 공고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2013년 총회를 실시합니다. 정회원분들의 권리입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께 본단체의 사역의 보고와 비전을 나누는 귀한 자리를 준비 하오니 많은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일시 2013년 1월 21일(월)
- 장소 미정(서울)/다음달 공지에정



제29회 기독교학술학회 개최

제29회 기독교학술학회가 11월 10일(토)에 명지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학회의 주제는 “SNS & CNS”로 크리스천의 SNS에 대해 강진구 교수님(고신대)과 김용찬 교수님(연세대)의 발표가 있었고, 각 분과 및 대학원 세션에서 총 50여 편의 논문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1년 <신앙과 학문>에 투고된 논문 가운데 심사를 거쳐 우수한 논문으로 류현실, 현창기 교수(공동논문)이 선정되어 새로남교회에서 후원하는 <새로남 우수논문상>을 시상하였으며, <청년우수논문상>에는 Vender Deolito Vistar, Jr.와 Susanto Agus(고신대)이 수상하였습니다. 발표된 모든 논문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실행위원 임명

본 단체 실행위원으로 최용준 교수님(한동대, 학문과신앙연구소 소장)을 임명합니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렌티어/사무국 후원 모집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발렌티어를 모집합니다. 기독교세계관 운동에 뜻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십니다. 함께 모여 역동적인 사역을 꿈꾸며 동역하기를 기대합니다.

- 모집분야 재능기부(글, 사진 등의 기자)
- *발렌티어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문의 02-754-8004/ 담당 : 신효영 간사

월드뷰에 광고하여 주십시오!

<월드뷰>는 회원 분들의 후원과 광고후원으로 이루어 집니다. 우리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리는 소망하는 분들께 전달되며 다양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참하시고자 하시는 많은 분들의 기관 및 단체 후원을 바랍니다.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립니다.

광고접수 문의 (대표전화)02-754-8004 / 담당 : 김고운 간사
이메일 info@worldview.or.kr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기초과정 9기 모집! 지금부터 접수 받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 양성을 목적으로 2009년 3월 첫발을 내딛은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기초과정 9기를 모집합니다. 한쪽으로는 기독교 세계관을 다른 한쪽으로는 미디어 실기 수업을 통해 1인 미디어 시대에 기독교미디어 일꾼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격 및 모집 일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자격

대학 재학 또는 졸업자 (세례교인, 75년 이후 출생자)

접수 방법

1. 서류전형 cmca.or.kr 접속 후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2. 면접 서류전형 통과자 대상으로 심층 면접 실시
 - 서류접수 : 2013년 3월 22일(금)까지
 - 면접일시 : 3월 29일(금)~30일(토)
 - 기 간 : 2013년 4월 6일(토)~8월 3일(토) (예정)
 - 수업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1:00~6:00
 - 수업장소 : 서울국제기독교 아카데미 (양재동)
3. 문의 02-754-8004 (담당: 홍정석 간사)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어떤 중년 남자가 설교시간에 구태여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서 꾸벅 꾸벅 졸고 있었다. 참다못해 설교자가 나지막한 소리로 “여러분 가운데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은”, 그리고는 큰 소리로 “일어서시오!” 했다. 그 남자는 조느라 첫 마디는 듣지 못했지만 “일어서시오!”란 큰소리에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섰다. 전 교인들이 큰 소리로 웃을 수밖에. 주위를 둘러보고 서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란 사실을 알게 된 남자, 강대상 앞에 서 있는 설교자를 향해, “목사님, 저와 목사님이 무슨 일에 같은 편이 되었는데 모르겠습니까만 우리가 소수네요!” 했다.



우리 아이와 함께 맞이하는 예수님의 생일!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만나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사회적으로 지탄 받던 세리와 창녀들과 친구가 되신 예수를 생각해봅니다. 아무런 감동 없이 비싼 선물과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으로 전락해버린 크리스마스가 무척이나 아쉽게 느껴집니다. 올 크리스마스는 나눔, 용서와 화해, 사랑이 가득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읽은가람 테마동화책 - 크리스마스 이야기 시리즈 〉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에게 줄 선물은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선물하세요.



읽은가람 테마동화책 - 크리스마스 이야기 1
레아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Leah's Christmas Story
마가렛 베이트슨 글 | 캐린 리틀우드 그림
정가 8,000원



읽은가람 테마동화책 - 크리스마스 이야기 2
네 번째 동방박사
The Fourth Wise Man
메리 조슬린 글 | 리처드 존슨 그림
정가 8,000원



읽은가람 테마동화책 - 크리스마스 이야기 3
고요한 밤 거룩한 밤
The Nativity Story
재벌던 맥코린 글 | 소피 윌리엄스 그림
정가 9,000원



읽은가람 테마동화책 - 크리스마스 이야기 4
짧고 긴 크리스마스 이야기
Five Minute Christmas Stories
존 굿윈 글 | 리처드 존슨 그림
정가 9,000원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기독교 홈스쿨가정과 기독교 대안학교를 위한 교재 및 커리큘럼을 공급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학문과 성경을 통합한 도서 및 교재를 소개함으로써 통합적 사고를 가진 아이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Tel. 02) 529-7722 | www.dctybooks.co.kr

“사랑, 친절, 섬김”

장혜경의원

- 고신대학교 외국인 학생 지정병원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협력병원

진료과목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비만관리
정형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통증클리닉

설비시설 물리치료실, 통증치료실, X-Ray실

원장 장혜경



약력 및 경력
 前 영도구 보건소 진료의사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졸업(MD)
 미국 조지아대학교 석사 박사(M.S. & Ph.D., Univ. of Georgia, USA)
 前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前 동아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창원대학교 외래교수
 대한노인병학회 회원



장혜경의원

- 예약 및 문의 **051-403-8800**(팔팔공공)
- 위치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국민은행 버스정류소 맞은편
(주소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363-14 장메디칼빌딩 2층 장혜경의원)
- 버스노선 8, 33, 88, 101, 113, 135 (동삼동 국민은행 하차)



Laboratory Industrial

105년 역사
양심을 다는 저울
오하우스



오하우스 코리아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처빌 1025호 TEL. (02)2040-6388, FAX.(02)2040-6392
www.ohaus.co.kr





5

명문가문을 이루며 차원을 사는 아이들

Arise, shine, for your light has come,
and the glory of the Lord rises upon you.

바른 신앙, 바른 인격, 앞선 실력의

21세기 글로벌 리더 양성



굿뉴스사관학교 2013학년도 신, 편입생 모집

- 모집대상 : 본교의 교육이념과 기독교 교육철학에 적극 동의하는 학부모님의 자녀
(초1~고1학년까지)
- 원서교부 및 전형: 홈페이지 다운로드 / 방문접수(행정실), 우편접수
- **장거리, 지방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자기주도학습실 포함) 완비**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및 행정실로 문의전화 바랍니다.



굿뉴스사관학교

www.gneschool.com

☎1588-0519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37-5 예성프라자 4~7F